



# 유가(油價) 안정화 이후가 더 어려울 수도...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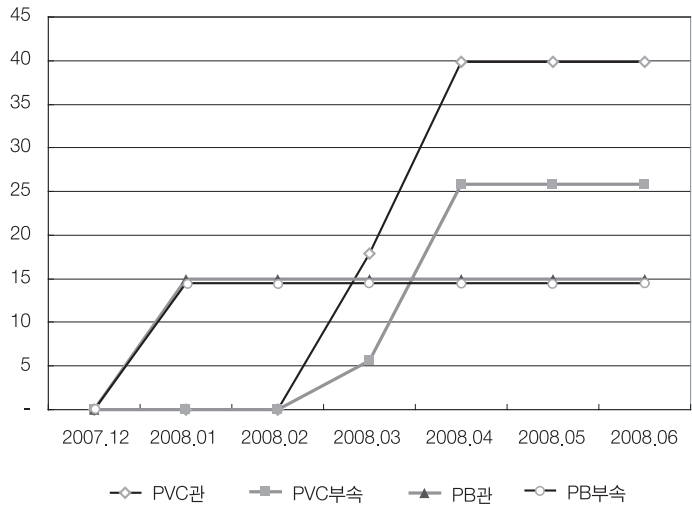
원자재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는 것에만 집중하며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려 온다. 올해는 그 시기가 예년과 달리 지나치게 지연될 뿐이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한숨 놓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뒷짐질 만큼 여유로울 것 같지가 않다. 특히 원유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반전할 때가 문제다. 1974년과 1980년 1,2차 오일쇼크시 유가가 진정된 이후에 물가는 더 폭등을 했다. 원인을 여러가지로 보고 있지만 유가 상승의 충격을 통제와 단기 미봉책 등 반시장적 메커니즘으로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해 물가 인상의 요인이 팽창하고 있는데, 이를 힘으로 만 막으려다가 결국 맥 놓고 있을 때 허를 찔렸다는 것이다.

이번 유가 폭등에도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까지 유가의 인상폭이 전체 물가에 일부만 반

영되었다. 그렇다면 유가가 내려도 물가 상승의 폭탄은 우리 시장에 계속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재 상승에 따른 대처 방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지만 그 이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유가의 폭등과

(석유화학 관련 설비 자재 단가 동향(%), 자료제공:원켄네트웍스, 6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한숨 놓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뒷짐질 만큼 여유로울 것 같지가 않다. 특히 원유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반전할 때가 문제다. 이번 유가 폭등에도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까지 유가의 인상폭이 전체 물가에 일부만 반영되었다. 그렇다면 유가가 내려도 물가 상승의 폭탄은 우리 시장에 계속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점에 이를 때까지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을 때로 나누어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다.  
상승세인 당분간은 인터넷 사이트와 업계 전문가 등을 통하여 주요 원자재의 가격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며칠 사이로 단가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처로  
부터 단가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가격은 떨어졌는데, 아직도 비싼 가격에 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때에 따라서는 선 발주와 발주 미루기의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 유가가 안정됐다고 무조건 발주를  
미루거나 무작정 기다리면 유가 폭등의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유가가 안정된 이후에도 잠재된 물가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최소 2개월 길면 6개월까지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설비건설업계  
모두가 유가의 정상을 잘 넘고 하산에도 유의하여 사뿐히 연착륙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그 영향이 우리 설비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이다. 우선 이것부터 따져 보고 넘어가자. 단적인 예  
 로 우리 업계의 대표적 유화제품인 PVC, PB 제품의 가  
 격 변동을 살펴 보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해 말을 0%로 놓고 봤  
 을 때, PVC관을 비롯하여 석유화학 관련 제품들은 이  
 미 14~40%까지 올랐다. 그리고 아직 추가 상승의 여  
 지가 많다.

우리 설비자재에서 유화제품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관련 제품이 많다. 결국 유가 상승의 직격탄  
 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유가 상  
 승의 영향을 앞에서 언급한 유화제품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가 상승이 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많다. 도장에도 페인트 등 관련 제품이 들어가고 가  
 공을 위해서도 연료로 석유가 필요하며 운반을 위해서  
 는 말할 것도 없다. 금속이나 비철금속의 제조 및 운반  
 에도 당연히 석유가 쓰인다. 결국 유가 상승은 자재 전  
 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 나라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유가  
 버블론을 들고 나왔다. 현재의 유가는 투기자금, 달러화  
 약세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거품이라는 것이다. 하반기 이  
 후 안정화 또는 심하면 반토막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를 한다. 그 기관의 공신력으로 볼 때 터무니 없는 이야  
 기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점에 이  
 를 때까지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을 때로 나누어 대비  
 책을 세워야 하겠다. 상승세인 당분간은 인터넷 사이트  
 와 업계 전문가 등을 통하여 주요 원자재의 가격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며칠 사이로 단가에 큰 폭의 변  
 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단가 정보 등을 얻  
 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가격은 떨어졌는데, 아직도 비  
 싼 가격에 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때에 따라서는  
 선 발주와 발주 미루기의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 특히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유가가 안정됐다고 무조건 발주  
 를 미루거나 무작정 기다리면 유가 폭등의 후폭풍을 맞  
 을 수도 있다. 결국 유가가 안정된 이후에도 잠재된 물가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최소 2개월 길면 6개월까지는 긴  
 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 것이다.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하라는 말을. 긴장하고 다리에 힘이  
 있으며 산 정상을 향하여 무게 중심을 둘 때는 넘어져  
 도 부상이 약하다. 하지만 긴장도, 다리의 힘도 풀리고  
 산 아래쪽으로 무게 중심이 놓인 상태에서 발을 헛디디  
 기라도 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우리 설비건설  
 업계 모두가 유가의 정상을 잘 넘고 하산에도 유의하여  
 사뿐히 연착륙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